무안공항 하늘길 4개월만에 열린다

제주항공 다음달 17일부터 무안~제주 노선 주4회 부정기 운항
전남도·무안군, 광주·목포방면 버스 운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전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저비용항공사(LCC) 1위인 제주항공이 7월 17일부터 무안·제주 노선을 주 4회(금~월) 부정기 운항하고, 이용객 추이에 따라 정기선 전환과 증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료는 정상가격에서 70~80% 할인된 2만~3만원대 특가요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탑승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 비행시간에 맞춰 광주, 목포 방면 전용버스를 운행하고, 지역 여행사와 연계된 상품개발과 홍보 지원을 통해 탑승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다양한 항공사의 취항을 유도하면서 노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항공사 손실액에 대해 국내선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국제선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상향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반기 운항횟수 45회 이상에서 36회로 완화할 예정이다.

무안군에서도 국내선 5000만원, 국제선 100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운항재개는 지난 3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자 지속적인 항공사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한 것이 첫 성과를 낸 것으로, 인센티브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국제선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출국이 일원화돼 현재로서는 재개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선 국내선부터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한 이스라엘 대사 광주 방문
인공지능 산업 협력방안 모색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25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시장과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환담에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이스라엘 혁신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발굴 등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해왔다.

이스라엘 인공지능 기업인 오르캠 테크놀로지(OrCam Technologies)의 암논 샤수아 대표는 광주를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 메시지로 전달했다.

자사의 인공지능 시각 보조기(MyEye 2) 5대를 광주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세광학교에 기증하기도 했다.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카메라로, 얼굴이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지난해 타임즈가 뽑은 최고 발명품에 포함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인공지능 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인공지능 시각보조기(MyEye2)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코로나19 여파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타격'

민주평화교류원기념관 복원·문화도시 육성 예산 등 대폭 깎여

5·18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인 민주평화교류원기념관 복원 사업 이 정부의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24억 8000만원이 감액됐다.

또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 복합관 건립 및 운영,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등 문화중심도시육성 예산도 28억원이나 깎였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집행하지않은 사업 등에 대한 감액을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교류원기념관 복원 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24억 8000만원이 감액됐고, 문화중심도시육성 예산도 28억원 줄었다.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예산도 3억원이 깎였다.

옛 전남도청에 자리잡은 민주평화교류원기념관을 다시 옛 전남도청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은 2019년 11월 설계가 추진돼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폭 감액했다. 설계 자체가 늦어졌고, 설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감액 이유다. 그나마 삭감 예산은 다음 예산안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또 보조사업자인 광주시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문화중심도시육성 사업 일부 예산도 일단 삭감한 뒤 다음에 배정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 복합관 건립 및 운영 사업은 6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사업은 5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은 17억원이 각각 조정 감액됐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사업 등은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운영의 일반수용비, 국외업무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3억원 감액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과 코로나19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시, 3급 3명 등 141명 승진 인사

광주시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41명 승진을 의결했다. 승진자는 3급 3명, 4급 12명, 5급 29명, 6급 34명, 7급 32명, 8급 31명이다. 〈명단 20면〉

강영숙 여성가족과장, 이정식 인사정책관이 3급으로 승진했으며,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연구부장은 원장으로 직위 승진했다.

광주시는 휴직, 전출 등 요인이 생겨 5급 2명, 6급 1명을 추가로 승진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 연구관(3~4급) 직위 승진을 비롯한 격리시설 운영, 방역 대책 추진,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실·국에서 상당수 승진이 나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자리 시책, 인공지능 산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발탁하고 대대적 혁신을 예고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질연구소 연구사 등도 승진자에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7월 3일 자 4급 이상 국·과장급 전보 인사에 이어 7월 17일까지 5급 이하 전보 인사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 3년 차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보 인사에서 희망 인사 시스템에 등록한 희망 부서를 최대한 반영하되 5급 이상은 시장 주재, 6급 이하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섬 주민 '치매·정신 이동상담실' 운영

전남도는 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병원선과 연계한 '치매·정신 이동상담실' 운영에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치매·정신 이동상담실'은 병원선 순회진료와 함께 펼쳐지고, 전남광역치매센터(성가롤로병원)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국립나주병원)의 전문 인력 2개팀 10명이 치매 조기검진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비롯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검사결과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 1:1 상담은 물론, 지역 보건소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전문적 치료,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동상당실을 운영해 현재까지 9개 시·군 47개 도서 138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

올해는 이달 신안군 장병도를 시작으로, 7월 여수시 소경도·대횡간도, 진도군 가사도·나배도, 9월 고흥군 득량도, 완도군 백일도, 10월 목포시 율도, 고흥군 죽도 등 10개 도서 13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관광객 7000만 시대 견인 관광재단 출범

전남관광재단이 25일 무안군 삼향읍 전문건설회관 재단 사무실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로, 앞으로 '전남 7000만 관광객 시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건철 대표와 4개 팀 11명으로 우선 출범했다. 앞으로 최대 25명까지 인원을 늘려 ▲국내외 관광마케팅 ▲관광산업 육성 ▲관광정책 지원체계 구축 ▲지역관광 추진체계와 협력 ▲관광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전남 대표 관광브랜드 구축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전남의 새천년 비전 중 하나인 블루 투어,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은 어렵지만 관광지 예약제 도입과 언택트(비대면)관광지 선정, SNS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를 내다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 3명 지원

광주 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에 3명이 지원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24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출신별로 관광업계 2명, 관광업 관련 학계 1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6일 1차 서류 심사, 이달 중 2차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광주 관광재단은 지난달 발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